

# 부끄러움의 정서와 눈물의 힘

이철영의 「詩, 내 젊음의 肖像」

90년대를 맞아 우리 문단에 자기점검과 함께 새로운 방법적 모색이 부족한 요즘, 새로운 詩同人이나 詩人の 탄생은 주목할 만한 가치가 충분하다. 80년대, 역사성과 문학성을 다같이 중요시하며 '리얼리즘의 서정성'에 대한 관심을 줄곧 지향해 온 시동인 '自由空間'의 일원으로서 활동한 이철영 시인의 데뷔 시집 「詩, 내 젊음의 肖像」은 시인 개인의 체험과 상상력을 기반으로 세계담구의 열정과 90년대 시문학을 향한 出師表的 의미가 한층 돋보인다.

소련 반체제시인 예프투센코는 지난해, 서울국제펜대회에서 진보의 열쇠는 부끄러움에 있다고 강조했었는데, 이번 雨期에 새로운 시인의 데뷔시집을 만나고 나서 필자는 마침내 그 뜻을 파악하기 시작했다.

시인은 시인인 동시에, 同時代에 다른 사람들과 같은 것을 먹고 같은 무기로 상처를 입는 예민한 인간이라고 했다. 생텍쥐페리가 그의 역작 「어린王子」를 통해서 현실의 건조성은 눈물의 습기를 통해 개선될 수 있다고 주장했듯이, 시인은 시집 저변을 면면히 흐르는 '부끄러운 정서와 눈물의 힘'으로 현실의 삭막함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

묵묵히 자신의 삶을 살면서, 답답한 내적 고백체로 그 삶과 시대와 역사성을 기술해나간 이 시집은 시인이 경험한 해외생활을 통해서 통감한 실존적 고독이 잘 나타나 있다. 지상의 외로움을 심하게 느끼는 시인은 민족적 문제인 분단현실과 맞부딪치게 된다. "그대는 노우쓰 코리안이 되고 / 나는 싸우쓰 코리안이 된다 그러나 / 아니다, 아니다" 라고 격하게 부정하며 통일을 열망하는 시인의 마음은 "닿을 수 있는 먼 길일뿐"이라고 민족적 희망을 가져

보기도 한다.

귀국한 시인에게 궁핍한 시대와 열악한 삶의 조건은 절망과 슬픔을 여지없이 강요하기 시작한다. 시인은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고 고통스러워 하면서 자기반성과 고해성사를 하고 만다. 따뜻한 삶으로 향하는 처절한 시적 대응은 "우리 병들어 있어도 / 기쁜 날은 있으리"라고 설득하며, 동시대인과 더불어 "깨어나라 부르는 소리있으니"라며 절규하고 비극적 세계관을 극복하려는 변증법적 자세를 요구하고 나간다.

존재의 不自由와 소외에 시달리는 시인이 눈물겨운 감수성을 끌어 안으며, 깊은 가족적 사랑과 이웃에 대한 강한 연대감을 가지려고 애쓰는 과정을 보여주는 이 시집은 자기존재 인식과정을 확대하면서 독자와 의미깊은 커뮤니케이션을 시작하는 것이다. 십자로에 있는 거울처럼 시인은 홀로 서서 현실의 건조성, 눈물의 나라에서의 따뜻한 통신, 새로운 세대의 건강한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 '사막이 아름다운 건 어딘가 오아시스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한 어린 왕자처럼 이 세상에 진정 부끄러움을 아는 시인이 있기 때문에 책임이 체험은 더욱 가치있고 보람된 것이었다.

## 손영호

서울시 성북구 길음3동 912-2 · 영화감독

# 순백의 영혼이 고백하는 삶의 아픔

볼프강 보르헤르트의 「이별 없는 세대」

한편의 경건한 동화 같은 보르헤르트의 「이별 없는 세대」를 읽으며 이미 오래전에 무너져버린 베를린장벽을 떠올렸다. 두 독일이 '통일'이라는 장미빛 기쁨으로 열광하는 지금, 묘하게도 나는, 그들이 파놓은 늪속으로 빨려들어간 보르헤르트를 생각하며 안타까운 느낌이 들었다. 인간을 지배하는 이데올로기의 벽은 그렇게 만들기 쉽고 부수기도 쉬운데 어쩌서 인간이 창조해낸 전쟁이라는 늪은 그렇게 아물기 힘든 상처로 세월이 흐르고 흘러도 변함없이 쓰리고 아픈 것일까.

1921년 독일 함부르크에서 태어나 1947년 26세의 나이로 죽기까지 독일의 가장 험난한 시대를 살아온 그가 만약 지금까지 살아서 이 장미빛 열광을 보았다라면 과연 뭐라고 했을까.

보르헤르트의 글은 마치 수술대 위에 펼쳐 놓은 인간의 내부처럼 더이상 숨길 것도 숨길 곳도 없이 결백하다. 문장 하나하나마다 날카로운 메스로 깔끔히 다듬어놓은 듯, 마주 대하는 나의 혼탁한 눈이 쓰리고 아플만큼 예리하기까지 하다. 극도의 비약, 줄거리가 선명한 영화를 마구 가위질한 듯한 과감한 생략, 그리고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내면과의 대화, 그것을 이해하고자 발버둥친 나의 무지함이 마치 두 평행선을 서로 이으려는 부질없는 노동처럼 느껴졌다. 그의 글은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저 느낄 뿐이다. 지금의 우리를 표본삼은 듯한 「이별 없는 세대」, 신이라는 무능자(?)에 대한 인간의 푸념을 얘기한 「신의 눈알」, 극도의 고독이 빚어내는 아이러니 「적설」, 노래를 흥얼거리는 듯한 율동적인 「글자 놀이」.

"우리는 서로 만남도 없고, 깊이도 없는 세대다. 우리의 깊이는 나라과도 같다. 우리는

행복도 모르고, 고향도 잃은, 이별마저도 없는 세대다. 우리의 태양은 희미하고, 우리의 사랑은 비정하고, 우리의 청춘은 젊지 않다. 우리에게는 국경도 없고, 아무런 한계도, 어떠한 보호도 없다—어린이 놀이터에서 이쪽으로 쫓겨난 탓인지, 이 세상은 우리에게 우리를 경멸하는 사람을 건네주고 있다."

만남과 대화 그리고 사람들의 웅성거림과 번잡함이 우리 삶을 대변하는 지금에 어쩌다 밀폐된 공간에서 죽음보다 더 고풍한 적막함을 맞닥뜨렸을 때, 보르헤르트의 말 그대로, 가슴에서는 향수라는 짐승이, 배속에서는 기아라는 짐승이 마냥 울부짖으면서 안으로 안으로 담을 쌓아가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의 순결한 영혼이 고백하는 아픔이 이 시대의 우리에게도 꼭 그만큼의 위안을 준다. 포탄소리에 귀먹고 총대를 거꾸로 메고 있는 뜻대없는 병사의 모습같은 우리 세대는 향수도 기아도 아닌 자기투쟁이라는 이름의 짐승을 가슴에 사육하며 또다른 이데올로기 속에서 그 누가 파놓은 지도 모르는 또 하나의 늪으로 발을 디딜고 있다.

한줄 한줄, 만지면 때가 타버릴까 조심스런 보르헤르트의 글 속에서 아름다운 詩마냥 사라진 우리 세대를 끄집어내본다. 하얀 순백의 이미지. 모든 감상 따위는 갈라버린 우리의 객관적 모습에서 그도 우리도, 그의 세대도 우리 세대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동질의 아픔을 찾는다.

## 성상희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1동 117-21 24 / 8 · 학생

(구) 동보기획



참신한 기획,  
기발한 아이디어,  
젊은 감각들이 모여  
누구도 모방할 수 없는  
결작만을 고집합니다.

■ 표지 디자인 · 본문편집 · 교정 · 제작 · 전산 · 수동사식  
영화 · 비디오 홍보디자인 및 PR기획  
기업 · 관공서 · 학교 등의 홍보기획 및 디자인  
상품 · 상호 등의 디자인 및 카피

서울 · 중구 충무로4가132-5 Q빌딩3층

PHONE: 278-5883 / 279-1323  
FAX: 278-5883

“ 표지디자인 때문에 고민하고 계십니까?  
독자들의 관심을 끄는 표지디자인을 원하십니까? ”

다물기획에는 출판인들의 노고의 산물인 좋은책이 독자와 만나는 것을 보다 쉽게 하기 위해 '읽기쉬운 책' '보기좋은 책' '선택받는 책' 만들기를 추구하는 재능있는 젊은이들이 모여 있습니다. 다물기획은 ऐसे 만들어진 좋은책과 보다 많은 독자가 만날 수 있는 길을 찾는 디자인 전문회사입니다.

표지디자인 · 본문디자인 · 출판광고디자인



다물기획 133-080 서울 · 성동구 응봉동 10-83  
TEL/292-4546/294-9639 FAX/294-6443

# 여성내면의 심리적 억압기제 고발

콜레트 다울링의 「신데렐라 콤플렉스」

현대사회에서 가장 크게 부각되고 있는 문제는 사람들간에 발생하는 불평등과 소외에 관한 것으로서, 이는 바로 여기에서 인종·계급·소유 등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숙고는 심각하게 다루어져 왔으며, 지금도 다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인류의 반을 차지하고 있는 '여성'의 소외에 관한 연구는 이들에 비해 가장 늦게 그리고 가장 어렵고 더디게 진행되고 있을 뿐인데, 이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되고 가장 커다란 피지배 집단인 여성의 '해방'에 관한 문제를 문제자체로서조차도 인정치 않으려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은 수를 점하는 까닭이다.

아무튼 짧은 기간으로 인한 좌충우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해방'에 관한 연구는 놀랄 만한 진보를 이루었으며, 여러가지 가시적인 결과들 - 사회현상과 연계되어서 - 이라는 성과를 얻어냈다.

미국의 여류작가 콜레트 다울링의 「신데렐라 콤플렉스」는 여성해방에 관한 하나의 연구서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여성해방에 관한 기존의 이론들이 대체로 여성자신이기 보다는 외적이고도 사회구조적인 문제로서 여성문제를 다루고 있는 반면에 콜레트 다울링은 여성문제에 관한 모든 화살을 여성자신으로 즉 여성의 내적인 문제로 파악해 보고자 하는데 그 특징이 있다.

다울링이 말하는 '신데렐라 콤플렉스'란 주로 억압된 태도와 불안이 뒤얽혀 여성들이 그들의 의욕과 창의성을 한껏 발휘하지 못하는 일종의 미개발 상태로 묶여두는 심리상태를 뜻하는 것으로서, 저자는 이 책에서 타인의 보살핌을 받고자 하는 깊은 소망인 개인적,

심리적 의존상태가 오늘날 여성들을 억압하는 주요 요인이라는 점을 밝히고자 한다.

그래서 오늘날의 여성들조차 신데렐라처럼 그들의 삶을 바꾸어줄 구원의 무엇을 '아직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저자는 다음과 같이 외친다. "여성들이 '해방'을 지향하는 진정한 목표는 단 한 가지밖에 없다. 즉 내부로부터 자신을 해방시키는 것이다."

즉 저자는 여성문제의 본질을 제도나 규범, 문화와 같은 외적인 요인으로 돌리지 않고, 오히려 이러한 외적인 요인들을 수용하면서 - 거부하지 못하면서 - 자신 내면에 끊임없는 갈등을 내포하고 괴로워하는, 그래서 신데렐라의 꿈을 포기하지 않는 여성의 내적인 심리상태에서 찾는다. 그리고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수많은 종류의 실례를 곁들여,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문제의 본질을 망각한 채 고통받고 있는지를 보이고자 한다.

저자에 의해 열거된 예들이 우리네 상황과는 극히 다른, 너무나 미국적인 것임에 거부감이 일기도 하고, 단일한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실례들을 반복함으로써 책의 분량이 필요 이상으로 늘어나 산만해지는 느낌도 없지 않지만 '여성해방'이라는 문제에 대해 관심있는 사람들에게 권하고 싶은 책이다. 특히 스스로 선택하지 않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인해 갈등을 겪는 사람들에게.

## 임운정

서울 서초구 양재동 281-6 28층6반 · 학원강사

# '떠남'을 통해 깨닫는 가족의 의미

앨런 차이벨의 「자유계약 소년 노스」

스스로 자신의 어머니·아버지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면,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 자신의 배우자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일생을 함께 살기도 하고 혹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현대사회를 과거 유교적 전통 속의 선조들이 상상할 수 없었던 것처럼 부모 또는 자녀를 임의로 선택·결정한다는 것은 어쩌면 가까운 미래에 가능한 일일지도 모른다.

작가 앨런 차이벨은 바로 그러한 발상에서 아홉살짜리 소년 노스를 등장시켜 기발한 여행을 하게 한다. 노스는 모든 부모로 하여금 자기 지식들에게 "왜 노스처럼 되지 못하니?"라는 질문을 던지게끔 만드는 아이이다. 그리고 그런 질문을 받은 아이들이 질투하거나 화내지 않고 "도저히 당해낼 수 없어요"라고 대답하게 만드는 아이이기도 하다.

그는 자신이 부모로부터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 '자유계약 양자'가 되기로 결심한다. 그리하여 엄청난 '부모 지원자들' 중에서 최종적으로 선발된 여덟명의 후보들을 면접하기 위해 지구를 여행한다.

거대주의에 젖어 있는 텍사스 부모에서부터 자신의 독선으로 뛰어난 자녀만을 인정하는 도회지 사업가 부모, 지나치게 자유로움만을 구가하는 히피족 부모, 쿨리한 냄새를 달고 다니는 낙농가 부모, 엄격함 그자체인 아미슈 부모에 이르기까지 온갖 특성을 망라한 부모 후보자들을 만나는 노스. 과연 그는 만족스러운 부모를 발견할 수 있었을까?

대답은 명백하고 충분히 짐작가능한 것이다. "노스는 원래 부모에게로 돌아가야 한다"이다. 그러나 노스의 여행이 노스 자신과 노스의 부모에게 어떠한 경험을 남겼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점이다.

작가는 노스에게 '유모어'를 배우게 함으로써 모든 위기와 곤란에서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부여한다. 그리고 노스의 부모를 비록 이상적인 부모일 수는 없다하더라도 적어도 자녀가 참아줄 수 있는 부모로 변화시킨다.

자녀를 자신의 소유물이나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존재로만 파악하는 많은 부모들의 권위적 태도가 자녀들에게 얼마나 커다란 상처가 되는지 작가는 인식하고 있다. 여기에서 작가의 의도는 가족개념의 해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가족적 결합'에 있다. 노스의 가족이 그후 얼마나 행복하게 살았는가는 알 수 없지만 그들에게는 서로가 소중하고 유일한 (세계 어디에서도 새로 찾아낼 수 없는) 존재 이리라는 것은 분명하다.

아침 저녁으로 마주 대하는 가족들의 모습이 불만스럽고 미워질 때, 자신의 얼굴을 거울에 비추어 보는 여유를 가지면서 읽어 내려간다면 마음편히 웃어버릴 수 있을 그런 책이다.

## 이정은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동 241-21

# 단색 스캐너

## 寫眞製版

— 전문메이커 —

- ◎ 즉석, 포시, 네가가격으로
- ◎ 선명하고 깨끗한 사진 작업
- ◎ 읍셋인쇄, 본문~표지까지

## 進光文化社

TEL. 265-4726, 266-2091  
주소: 중구 충무로 5가 2-23

## 「출판저널」 보관용 바인더 실비제작 배포합니다.

「출판저널」의 판형이 특수하여 보관하기가 까다롭다는 독자 여러분의 의견에 따라, 1년치(24호분)를 합철하여 보관할 수 있는 바인더를 만들었습니다.

희망하시는 분은 개당 제작실비 2,500원과 등기우송료 1,500원, 합계 4,000원을 우편소액환으로 주문하시면 즉시 보내드리겠습니다. 본사로 오셔서 구입하셔도 됩니다.



Illustration and Design

- 표지디자인
- 일러스트레이션
- 편집디자인
- 로고/심볼제작
- 광고기획제작

### 아이앤디

서울특별시 중구 저동2가 48-20  
경구빌딩 601호 Phone/277-8721

아름다운 책, 읽기 편한 책을 원하십니까.  
「여름새벽」으로 연락하십시오.  
「여름새벽」은 일급쟁이들로 이루어진 창조적 두뇌집단입니다.



◀ 표지디자인 · 본문디자인 · 출판광고디자인 ▶

121-130 서울시마포구 구수동 21-1 ☎ 718-6260